

「복합지원 1주년 성과점검 회의」 금융위원장 모두 말씀

※ 보도 편의를 위한 자료로, 실제 발언 내용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.

☐ 금융위원장임

○ 참석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부터 드림

☐ 오늘은 정부와 시행기관이 모두 모여

올해 초부터 힘을 모아온 복합지원 정책의 1주년을 되돌아보고
앞으로의 발전 방안을 얘기해 보는 자리임

☐ 현장에서 당장의 경제적 어려움과 괴로움을

겪고 있는 분들을 접해보면,

○ 금융 여건 외에도 취업 상황이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

건강이나 돌봄 등 기초 복지 여건도 미비한 경우가 많았음

☐ 이런 분들께 가장 중요한 것은,

부처의 칸막이를 떠나 어느 지원센터를 방문하더라도

필요한 서비스를 **한 번에 원스톱(one-stop)**으로 제공받는 것임

☐ 이런 취지에서 정부는 지난 1월부터

이곳저곳에 흩어져서 나뉘어 공급하던

금융, 취업, 복지지원 정책을

공급자가 아닌 **수요자 입장에서 재편·연계**하여

○ 서민금융센터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

한 번에 연계·제공하는

복합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

- 이러한 노력의 결과, 올해 시행 1년 만에
 약 7만 2천명께 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드렸음

- 저는 여기서, 춘천서민금융센터에 방문해 복합지원을 받으신
 어느 40대 분의 이야기를 간략히 꼭 전달해 드리고 싶음
 - 이분은 생계자금이 필요해
 소액생계비대출을 받으러 오셨으나,
 요건이 맞지 않아(신용평점 하위 20% 미해당) **이용할 수 없었음**

 - 복합지원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
 지원이 거절되며, 종결될 케이스였음

 - 하지만 금융지원 대신
 “복지 위기가구”에 해당(부모님 사망 및 실직)되어
 복지부와 지자체의 복지지원을 받으시고,
 고용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도 함께 연계 받아
 안정적인 직장에도 취업하게 되었음

- 하지만, 국민 입장에서
 “종합지원”, “복합지원”은 이제 시작임
 - 앞으로는 서민금융센터뿐만 아니라
 국민들께서 자주 방문하시는
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 민간 금융회사를 통해서도
 복합지원 서비스를 안내받아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음

 - 또한, 많은 이용자들께서 필요로 하시는
 주거 지원(주금공 특례전세자금보증) 등이 연계될 수 있도록,
 필요로 하는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겠음

- 제가 마지막으로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,
현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기 상담직원 분들이
이용자들이 재기·자활하시는 것을 보고,
일거리가 조금 더 많아져도
보람을 느끼며 더 열심히 연계해주시는 데에
복합지원의 성패가 달려 있다는 사실임
- 직원분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전문적으로 업무에 임하시고
이용자분도 만족도 높은 복합지원과 “재기”를 이루실 수 있도록
정부와 유관기관은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습니다